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지역소식 > 지역사회

'고하 송진우 선생' 장성 백양사에도 안내판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19.07.15 16:20

한때 머물던 백양사 청류암에 얽힌 사연 기록

담양출신 언론인 이자 항일애국지사로서 근대사에 이름을 올린 고하 송진우 선생의 장성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는 안내판이 장성 백양사에 세워졌다.

(재)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소재 백양사와 산내 암자 청류암에 송진우 선생과 청류암에 얽힌 사연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송진우 선생은 소년시절인 1905년부터 1년여 동안 백양사와 청류암에 들어가 수학하며 친구들과 독립운동의 구국방략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이 시기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 밤을 지냈던 방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 있는 백양사와 청류암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 등산객에게 이같은 내용을 널리 알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념사업회가 백양사 고불총림(방장 지선 큰스님)측의 관심과 협조 아래 백양사 입구와 청류암 앞에 안내판을 세웠다.(참고=안내판 내용)

한편 고하 송진우 선생은 고향마을인 대곡마을에는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생가가 복원됐으며 생전의 유품과 활동기록물을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또 담양읍 관어공원에 추모비, 담양공고 앞 삼지공원에 추모시비가 있다./장광호 기자

●안내판 내용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 선생과 백양사 청류암(白羊寺 清流庵)>

일제식민지시대와 광복 후 건국과정에서 독립운동가, 교육가, 언론인, 정치가로서 우뚝 선 고하 송진우(1890~1945) 선생과 백양사 청류암에 얽힌 사연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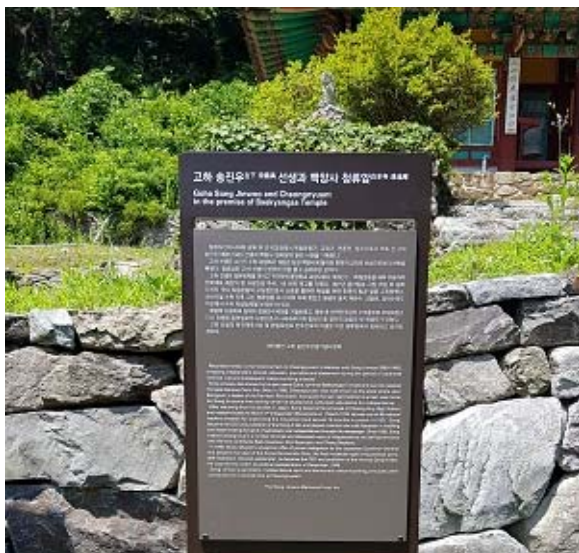
고하 선생은 소년기 수학 과정에서 1905년 장성 백양사에 들어와 한학자 김직부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청류암은 고하 선생이 망국의 한을 품고 공부하던 곳이다.

고하 선생은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1919년 3.1독립운동을 배후 주동하여 민족대표 48인의 한사람으로 투옥, 1년 반의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동아일보 사장 취임 후 광복 시까지 국내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신문을 통하여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과 열을 고취하였다. 소년시절 수학 이후 그는 청류암을 다시 여러 차례 찾았고 평생의 동지 백관수, 김병로, 장덕수와도 이곳에서 수차 독립방략을 논의한 바 있다.

해방에 즈음하여 일제의 정권인수제의를 거절하였고, 광복 후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로 추대되었고 다시 간행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서 나라세우기에 힘쓰던 중 정치적 암살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고하 선생의 애국애족사상 및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의 이념은 이곳 청류암에서 잉태되고 길러진 것이다.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양사 청류암 앞



▲백양사 쌍계루 앞

인쇄하기